제348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월20일(금)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2.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상정된 안건

2. 업무현황보고 ····· 2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 간사선임의 건 ····· 3
o 간사(박인숙) 인사 ····· 3
2. 업무현황보고(계속) ····· 3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남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해 복 많이 많으시고 올해에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근 새 교섭단체 구성과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따라서 상임위 좌석 배치를 변경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1월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김부년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

2.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0시37분)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요. 의사일정 2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권용현 차관은 대통령권한대행 수행 일정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의 양해하에 오늘 참석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처음 개최하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간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모두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터 복귀를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폭력예방교육을 도서벽지와 산간오지 및 여성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추진하고 성매매 유인 랜덤채팅앱,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진 위기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어려움에 처한 모든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쉽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부모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생활지원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가족행복드림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과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펼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의사일정 1항을 지금 저희가 먼저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인숙 위원님께서 조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간사선임의 건

(10시43분)

○위원장 남인순 의사일정 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에서는 박인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인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박인숙) 인사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방금 선임되신 박인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생긴 바른신당의 위원 1명이자 간사입니다.

이제 간사가 모두 네 분이라 특히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해서 원만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0시45분)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이기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2017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책자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여성가족부 추진계획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로 네 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터에서 가족친화 문화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3월 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이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2800개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도 1600개로 늘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체인력 수요를 분석해 채용을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 가이드북을 보급하는 등, 또한 육아휴직자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취업자와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종·산업별 협회 중심으로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틈새 직종을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취업 연계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일센터에서도 창업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부터 시범 운영한 창업 관련 교육모듈을 새일센터 모든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새일센터에 창업지원 담당 매니저를 지정하며 창업 관련 종사자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50개소인 새일센터를 올해에는 155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부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서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대표성 제고가 시급한 분야의 경우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과 직종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여성인재 DB 등록부터 공공분야 참여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여성인재 활용이 보다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디어상의 성차별 사례를 좀 더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미디어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부 홍보물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지자체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과제입니다.

우선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도서벽지, 산간오지와 여성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추진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추방주간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문화 조성을 위해서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확산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해서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폭력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여성안전지표를 개발해서 여성 또한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안을 마련하고 사이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랜덤채팅앱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 성폭력 실태 연구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시간 채팅상담과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에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24시간 내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올해 자립형 보호시설을 신설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생계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입소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를 확대하는 등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점검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자녀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라든가 감호위탁제를 개선·보완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중등과정 확대 등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과 행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련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활동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안전정보를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교육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 주체를 본인에서 부모와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 11일부터 발급되고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이용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동반자를 확충하고 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1388 상담채널과 현장도우미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학령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숙소동을 증축하여 치유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전문적 치유·재활 지원을 위해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히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가정에 패밀리멘토 방문으로 정서적 지원 코칭을 강화하고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신규 건립해서 지역의 치유·재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단속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종 유해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요새 늘어나고 있는 무인텔 이성혼숙 방지와 흡연 관련 물건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 참여 중심의 정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누구나 쉽게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처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전문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가족행복드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 144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해서 양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연 204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습환경이 구비된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치해서 자립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여부 점검 모니터링 전담인력

을 확충하고 현장기동반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북한이탈가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일제 대상 연령을 36개월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중심으로 육아용품 대여, 중고물품 교환 등 육아나눔 참여를 지원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육아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은결혼식 으뜸 명소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실속 있고 의미 있는 작은결혼 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 총괄 부처로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활용한 상담과 긴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녀 성장에 보다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다문화가족 다수 거주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열심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공석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정춘숙 간사님, 윤종필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그리고 박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 한 해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왔습니다. 공무원 대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정책 교육, 양성평등과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교원 대상의 원격교육 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약 8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양평원은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국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교육 콘텐츠와 맞춤 서비스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인재 육성의 허브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방향에 발맞추어 정책 수립 주체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전략집단을 발굴하는 동시에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통합적이고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대상 특성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대책 의무화에 발맞추어 고충상담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 전반의 문화 변화를 위한 양성평등 진흥사업도 다각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미디어상 시상 및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대중매체상의 성차별, 비하, 폭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년도보다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그 효과에 대한 진단 등 프로그램 연구·개발도 본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양성평등 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 고유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국립여성사전시관, 여성인재아카데미 및 여성인재풀 확충 사업,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사업 등 내실 있는 위탁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원 전 직원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계획한 2017년도 제반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관장님들은 인사하시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신은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평소 저희 진흥원을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그동안 위축됐던 청소년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장의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진흥원은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진흥센터와 민간시설·단체 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청소년 활동 수요조사와 연구 활동,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의 상호연계,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와 성취 포상제 활동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교사, 부모 등 국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적극 제공·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5개 있는 국립수련원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도서지역 청소년 등 대상별·지역별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와 사전신고제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저희 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태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가치 확산과 위기가족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가·다가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확대에 따른 조기 안정화 추진, 부모교육 사업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교육 지원, 가족친화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 거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협의성립·법률·채권추심 지원과

이행 모니터링 강화로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인식 확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역량 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같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폭력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의 허브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흥원 전 직원은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관 컨설팅,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지원기관 운영과 피해자 지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더욱 역점을 두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에서는 전화, 채팅 등을 통해서 24시간 폭력피해 상담과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난해부터는 사이버상담·신고센터를 구축해서 상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폭력 근절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캠페인과 정책토론회 개최, 미디어 콘텐츠 개발, 정책 전문지 '여성과 인권' 발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더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인권의 허브기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개의가 예정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주질의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꼭 하실 분들은 나중에 잠깐,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보충질의도 시간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 남아 계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박차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한 게 너무 부끄러워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와 태도가 매우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진정한 사죄, 배상은커녕 큰소리를 치면서 10억 엔 줬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라, 소녀상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할머니들한테 돈을 나누어 줘서 가해국 일본의 만행에 정당성만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관님, 지난 18일인데 할머니들을 지원해 온 시민모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김복동 할머니 대화 내용 들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할머니는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 받은 것을 알지 못했고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화해·치유재단이 또 입장을 발표했지요.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용하

고 회유한 게 아닌지,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 매체에서 공개한 김태현 이사장과 할머니와의 면담 내용을 들어 보니 김태현 원장이 '살아 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염려해 왔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정말 제대로 설명하고 충분히 이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서 과연 이 돈이 나누어지고 있나,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녹취록을 제출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사적인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장이 설명한 부분이라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출 안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녹취록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몇 분 것이라도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재단 측이 김복동 할머니와 면담을 했다고 밝힌 6월 15일, 10월 7일 녹취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녹취록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녹취 풀지 못했으면 파일 사본이라도 주셔야 되고요. 김복동 할머니는 증언록을 출간해서 위안부 피해를 알리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녹취록은 재단 사업을 하면서 피해 할머니들께서 신청하신 부분이 지급 신청된 내용과 맞는지 그것을 하는 데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아니, 지금 녹취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미 인터뷰되었고 재단에서 반박 성명을 낸 김복동 할머니의 6월 15일과 10월 7일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은 재단에서 지급 신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한 참고자료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아니, 참고자료가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에서 자료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한 것도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일단 지급 신청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춘숙 위원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설명 받은 바가 없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에서는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가 화해·치유재단에서 받은 게 없어요. 여성가족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우리 부에서 또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에 2015년 합의 이후에……

○정춘숙 위원 아니, '알고 있는 바' 이런 것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복동 할머니가 얘기한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동의를 받았고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는 6월 15일, 10월 7일 녹취록을 제출하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도 그 내용을 그때 동행한 경남도청의 그 공무원들한테도 전화 확인을 해 봤고 재단에도 연락을 해서……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여성가족부에서 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의 객관적인, 지금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주셔야지 우리가 확인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는 전혀 받은 바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한테 설명해 왔던 화해·치유재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확인한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경남도청에서……

○정춘숙 위원 아니, 지금 못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녹취록은 여러 가지 개인사정 그리고 또 현장에 방문했던 재단 직원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부분도 경남도청에서

동행한 사람이 1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 당시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저희가 유선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카분한테도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은 한쪽 부분만의 의견이 과도하게 주장되었다는……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장관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관님 설명이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할머니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관련된 녹취록을 주라…… 그래야지만 이 화해·치유재단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죽 설명했던 바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요.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나게 높은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 문제는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정춘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면 여성가족에서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녹취록은……

○위원장 남인순 녹취록에서 그것을 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당시에 현장을 이 녹취록이 기록 여부로 남아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그대로 해서 혹시 지급에 있어서 착오가 있을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담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일일이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왜냐하면 국회는 또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아까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곡이면 또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녹취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 과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행을 했던 경남도청의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에 가신 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의 과정을, 죽 그 경과를 정리를 하시고 또 실제로 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녹취한 부분도 거기서 어떤 인권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리고라도 확인을 하면 오히려 국회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실은 이렇게 자료가 제공이 안 되면 그냥 언론에 난 것대로, 또 서로 주장하는 것이 상반된 대로 하면 이 갈등이 오히려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나서셔서 이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다 자꾸 설명을, 꼭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설명을 제대로, 여기 정춘숙 위원님 방으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제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 재단에서 할머니들의 인권과 또 마음 아픔, 이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상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할머니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 관련해서 투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재단에서 가서 이렇게 회유를 해서 이 마음을 바꾸거나 본인들의 원래 마음이 이런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이럴 분들이 아니십니다. 본인들이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급 의사를 수용하신 것이지 특별히 그 시민단체가 주장하듯이 회유를 했거나 돈 봉투를 들고 펼쳐 보이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시고 이럴 분들이 아니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러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그 과정을 국회에서 정확하게 소통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또 최근에 어쨌든 통영 시민단체에서 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지급받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경과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쨌든 정춘숙 의원실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을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왜곡된 부분이었고 어떤 것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별도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 지난 일요일에 30대 워킹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사망한 일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부처를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침통해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기사로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막 마치고 돌아온 분이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밤낮으로 일을 했고 특히 사망하는 당일 날도 일요일 오전 일찍 출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시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특히 공공 분야가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들을 가장 선행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고 또 가장 장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에서조차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와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이 일과 가사를 양립하는 게 여전히 어렵구나, 그리고 가정도 남성이 육아휴직이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현주소로는 사회 전반에 다 확대되어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라는 것들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여성가족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가장 주무부처인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사건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여러 대책들이 여럿, 몇몇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에 또 전제되는 것이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여성공무원은 권익위에서 복지부로 전입하면서 본인의 전공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워낙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양적으로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동력 있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섬세한 부분의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6년간 휴직을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는 좀 소프트하고 유연하게 근무가 이관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공백기간에 따라서 이런 배치 부분 그리고 업무를 서서히 익혀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나 행정 관련 우리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이후에 배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일·가정 양립을 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가사,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한 문화도 같이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여성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남성도 도와서 이게 하나의 균등한, 평등한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성육아휴직도 저희가 강조하고 작년에 소기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남녀가 균등하게 같이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도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문화 이런 것들이 근로문화와도

상당히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세울 때 고용부와 굉장히 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인도 과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다든지, 야근을 앞세우는 이런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범부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위원장 남인순 마무리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범부처적인 대책을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부처의 어떤 회의랄지 이런 것을 시급히 열어서 어차피 올해 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며칠 전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쪽에서는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비교적 하기 좋은 조직에 속하는데 그 안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업무의 과부하나 시기에 따라서도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과부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면 업무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유연근무제나 이런 일·가정 양립에 관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제반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그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장관님, 일본 정부 돈 10억 엔 이게 그동안 외교부 관료나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께서 국회 국정감사 질의 등에서 '배상금적 성격의 치유금이다'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요. 제가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거기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가 쓴 기고의 전문이 화해·치유재단 보도자료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원문을 한번 읽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10억 엔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부 예산 조치로 내놓기로 했으므로 누가 봐도 사죄 반성금이고 사실상의 배상금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관님, 이 글 쓴 교수님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위안부 백서 연구 책임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일본 정부 총리가 사실 사과도 못 하고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재단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배상금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화해·치유재단의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저는 당장 글을 내리고 재단에 엄중 경고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재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위안부 백서를 마지막으로 12월 말까지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방에 오셔서는 일단 사정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언론을 통해서도 위안부 백서 부분에 대한 마무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저희 위원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시사 IN' 1월 14일 자에 보면 '1-4-16 티타임' 메모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중에서 10번에 '정대협 실체'라고 하는 메모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그것 보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권미혁 위원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12·28 합의 반대 단체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동향을 점검하라든지 지원을 금지하라든지 협력을 중단하라든지 내지는 자료를 달라든지 활동 실태가 어떤지 하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즉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관리류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어땠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 이후에도 정대협에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해 왔던 마음의 집을 운영하는 운영비 3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혹시 여가부가 그동안에 3·8여성대회, 여성단체연합 지원도 좀 거부를 하셨었고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민간단체도 지원을 거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혹시 정권 차원에서 이 12·28 합의 반대 단체에 대해서 색깔 씌우기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이런 걸 했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안종범 수석의 그 메모에 보면 분명히 '정대협 실체'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혹시 이런 의심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두 부분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협에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했는데 반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도 여가부의 의지가 아니고 단체의 의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3·8 여성대회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역시 예산을 편성했고 정부 정책하고 좀 다소 견해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부의 사업 담당자하고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뭐 배제라든가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덕 교수께서 배상금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처음에 외교부와 우리 여성가족부가 합의 이전에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시간에 방문을 하면서 요청했던 내용이 어떤 수준을 바라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는 일본이 사죄를 하고 그 사죄의 뜻으로 일본 예산이 출연된 사죄금을 받기를 원한다, 배상금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이사님들도 할머니들이 요구하신 바대로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했고 그 사과의 뜻으로 일본이 현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해석과 재단 이사로 계신 분의 해석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뭐 단어 그 자체에 방점을 주기보다는 일본이 사과를 했고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정부 예산이 출연됐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서 부분은 저희가 원래 작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백서 그 부분의 연구,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 백서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정리하는 부분에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다소 존재했고 그 이견에 대해서 작년까지 좁혀지지를 않았고 또 전체 공동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시간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좀 정리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고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미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2·28 합의 이후에 정대협 신청 지원금 3000만 원을 정대협이 거부를 했었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일단 지급은 했었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런데 정대협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시켜 드리고 일본 정부, 총리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재단의 이

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장 글을 내리고 재단에 엄중 경고하기를 여가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장관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우리 소아·청소년 인구를 앞질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통계 관리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해서 걱정해 왔는데 이제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올해가 인구절벽을 탈출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라는 것은 경력단절의 여성이나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올 3월부터 공공기관이 의무화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송희경 위원 너무 반가운 일인데, 물론 공공기관이 이렇게 선도해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제가 이게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전시행정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하라니까 하고 하는 시늉만 내는.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를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명백한, 일을 주려면 가중치가 분명해야 되고 또 잘 하면 거기에 대한 무조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게 요즘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족친화 인증의 총 18개 항목 중에 세분화돼 가지고 100점 만점인데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이 20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가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워킹맘이나 워킹대디가 중요하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시퇴근 하도록 CEO가 진짜 그렇게 해 줄 거냐, 이건 행동이거든요.

의지는 20점인데 행동으로 하는 건 5점 배점밖에 안 돼요. 의지는 있다 하나, 인터뷰 때 의지는 있다, 그런데 정시퇴근 안 시켜 주면 그건 5점만 감점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제가 끈질기게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5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0.5점에 불과해요. 그럼 누가 그 가중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CEO는 막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 20점 받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액팅하는 것은 이 점수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걱정되고요.

이걸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확실히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여성분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애 낳고 나와서 일하도록 하는 새일터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작년에 정기회 국감 때 여기 시대적인 배경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나 생각하는 힘의 교육, 이게 이제 내년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초등학교도 2019년부터 17시간 하게 되어 있고 방과 후 교사도 지금 무지하게 필요하고요. 2년 후면 무려 9000여 개의 학교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이공계 출신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35만이 있으니까 좀 재교육을 시켜서 소프트웨어 방과 후 교사, 일자리 만들어 주고 또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로 양성시켜 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그래도 우리 여가부에서 새일센터에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좀 강화하라고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9개 센터였던 게 올해 49개 센터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무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국이 700개거든요. 그중에 너무 적은 거지요, 가중치로 보면. 여기를 파격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지금 전통산업이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커 오면서 생각의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센터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족친화 인증기업 공공기관에 할 때 가중치 부분 그다음에 평가 부분 그다음에 보상 부분, 그다음에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새일센터의, 적은 센터의 과정 수립, 이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새일센터가 커리큘럼을 넣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재능기부를 해서라도 그 과정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 제가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재능기부를 할 마음도 있고 한데 좀 늘려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보강하시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있어서 CEO의 의지를 저희가 더 많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CEO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작동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것보다는 CEO를 더 많이 보고, 그러나 작동하는 시스템 전체도 보면 배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배점들을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후 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재인증을 하고, 이게 가족친화 인증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3년 후에는 다시 재인증을 받고 또 2년 있다가는 완전히 새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족친화를 하겠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가족친화 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을 하겠다는 데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희경 위원 제가 마이크 꺼졌지만,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좋은데요. 가중치를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실행에 대한 점수를 20점에다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 그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이 친화제도를 지속 가능하고 또 사실은 친화제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사실은 특별히 저희가 푸시를 할 수……

○송희경 위원 보강해 주시고요. 그 가중치를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래서 그 가중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당장 보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숫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우선 시범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입니다.

장관님, 새해 첫 상임위에서 이런 여가부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새해 벽두부터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여가부차관님께서 막말하신 것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뭐 나름……

○문미옥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해명자료도 나갔었는데요.

○문미옥 위원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렇게 제가 받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 시국과 관련해……

○문미옥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은 좀 더……

○문미옥 위원 장관님의 판단과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시국과 관련해서 최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많다고 안타까움

을 밝혔던 부분이 있고요.

○문미옥 위원 시국과 관련해 경제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리고……

○문미옥 위원 그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성형시술과 관련해서 막말하신 것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그게 전체 내용이 아니고……

○문미옥 위원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대화의 내용에서……

○문미옥 위원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미옥 위원 예, 그 태도가 그러면 그 엄중함에 비해서 어떤 태도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문미옥 위원 전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중한 만큼?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완전히 공개 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문미옥 위원 교육부에서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막말을 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할 의도나 이런 표현은 저는 없었다고……

○문미옥 위원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공직자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장관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고만 잡아떼십니까? 그 잡아떼시는 내용이 두 번째 또 드러납니다.

행자부에서 최근에 출간한 '대한민국출산지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문미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미옥 위원 어떤 면에서 신중했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정부 부처에서 홍보하거나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그런 설명자료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저희가 여가부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 확인을 했더니 여가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막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무 서기관들이나 사무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사전협의 요청이 없었다', 저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내 줬습니다.

행자부, 출산지도 구축과 관련해서 여가부와의 협의 내용, 7월 28일 국장급 회의, 8월 10일 실·과장급 회의, 8월 18일 차관회의, 8월 25일 국가정책조정심의, 여가부에 협의 안 된 내용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협의는 했지만……

○문미옥 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미옥 위원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의 이런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 관련 있는 부처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협의 없었다라고 잡아떼면 끝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상임위부터? 장관님이 자꾸 그렇게 전체를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지나가니까 뒤에 계시는 실국장급, 심지어 차관까지도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다소 좀……

○문미옥 위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베 총리, 사과한 겁니까?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합의해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고……

○문미옥 위원 그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최근에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과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사과한 국가의 태도입니까, 이것이?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좀 더 일관성 있고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미옥 위원 그러면 여가부장관……

1분만 더 주십시오.

여가부장관으로서 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신년 기자회견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문미옥 위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6년 국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사과를 했느냐, 10억 엔이 무슨 돈이냐라고 계속 지적을 할 때마다 사과를 했다, 10억 엔은 배상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게 거짓말이라고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미옥 위원 속인 겁니다. 속인 겁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관님부터 차관, 실국장, 사무관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했다, 그러면 행자부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행자부는 여가부에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는 버젓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 직원들의 성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어느 수준입니까? 교육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인순 장관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옥 위원 심각하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관련한 회의를 한 부분은 맞지만……

○문미옥 위원 그 회의 가서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러니까 전체 출산율, 저출산 해소에 관련된 정책적인 내용을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미옥 위원 저출산지도를 가임여성 분포도를 한다는 내용을 결과를 못 받는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요. 그 세부적인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또 행자부에서 별도로 한 거고.

○문미옥 위원 회의할 때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가부의 실국장급이 가셨으면 어떤 방식으로 여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제언도 하지 못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때 회의의 주된 내용은 저출산 해소에 관련된 각 부처의 제안들이 수합되는 과정이었고 그 수합된 제안에 대해서 행자부가 국민 대상으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발표하는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권고할 타이밍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번에 걸친 국장급 회의, 실·과장급 회의, 차관회의, 국무조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장관님이 또 밑의 직원들 비호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거나 거짓말하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출산지도와 관련해서 행자부와 협의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또 여가부가 답변을……

○문미옥 위원 거짓말로 답을 주십니까?

○위원장 남인순 보냈다고 하니까, 보냈고 그렇지만 또 협의가 있었고 이런 거니까 그 경과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문미옥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있었고 또 그런 지도가 나오게 됐는지 경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방학이 되어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을 상대한 부당행위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근로시간을 미준수하고 주휴수당이나 대기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욕설, 막말, 인격 비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부당노동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면서 그리고 일은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고 쉴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는 그런 가혹한 노동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못 견딘 청소년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 임금을 못 주겠다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은 건수로 임금을 받다 보니까 과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고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여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아까 일하는 청소년 임금체불 상담 및 현장 지원으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 배포, 이 정도의 소극적 대응을 기재해 주셔 가지고 이 정도로는 문제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깨우쳐 주는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임금 받지 못했을 경우는 청소년들이 업주와 직접 상대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와 이 부분은 어떻게 공조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청소년근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근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현장근로도우미나 이런 제도를 쓰는 이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 때 지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장근로도우미를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 확보에 좀 실패,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8을 통해서 청소년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작년에 들어온 건수를 보면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현장근로도우미도 파견하고 해결을 한, 저희 쪽에 들어온 내용은 비교적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결을 했지만 수도권과, 수도권 쪽에서는 현장근로도우미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지방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올해 내에도 저희가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근로 지원에 대한 안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라도 꼭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장근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업주들에 대해서도 처벌규정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나 단속 당부드리고,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각박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상처 받고 위축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고용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먼저 중국에 남아 계시던 마지막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박차순 할머니께서 1월 1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

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가족부와 장관님에 대한 신뢰도 그에 못지않게 점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장관님께서 19대 국회의원 때 위안부 백서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백서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를 여쭤 봤을 때도 의견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지만 조속하게 발간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외국 번역 작업도 차질 없이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날 2017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위안부 백서는 발간하지 않고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보고서가 완벽하게 백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백서를 발간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작년에 12월까지 발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용역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서 시간적으로 저희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고……

○신용현 위원 그때는 그렇게 답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백서를 포기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백서하고 연구보고서하고 틀린 것은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일단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보고서를 내게 되면 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백서를 포기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아닙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 정도만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다는데, 우리가 처음에 듣기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원래 예산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됐던 것은 아닙니다.

○신용현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다른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예산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개 국어 정도 하는 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래서 다른 일본어나 중국어는 안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외국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것은 앞에 답하셨던 거랑 완전히 좀 반하는 답이고요.

저희가 백서를 만든 의도, 제가 일본 언론보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이니치신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장관님 인터뷰를 보고. 그래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반발을 감안해서 일본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걸 염두에 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만 아니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백서를 발간할 수, 그러니까 기간……

○신용현 위원 발간을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지금 답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기간 내에 못 했던 이유는 저희 백서를……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기간은 지났고 이제 백서는 확실하게 발간을 하실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게 정확하게……

○신용현 위원 예스, 노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부 입장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니까 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최대한……

○신용현 위원 최대한이라는 게 벌써 몇 년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신용현 위원 상반기 중으로 백서가 나오고, 번역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번역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하고 분량과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들 번역하는 그 번역 시간만 드리면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얘기를 하셔서 저는 더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안 주셨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들하고 합의내용, 녹취록이나 이런 것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 '아, 이게 못 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들을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회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리수령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불통인 그런 상태로 운영을 계속하실 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언론에 일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현 위원 일부분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주시면, 다른 것을 다 떳떳하게 공개를 하시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일부분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꽁꽁 숨겨 두시고 전혀 자료나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주시고, 반면에 언론에서 받은 내용으로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면 자료를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아까 앞에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화해·치유재단의 사업목적이 피해자의 존엄 회복과 그리고 마음의 치유, 명예 회복입니다. 그게 목적인 재단이 그렇게 우롱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는 것은 좀 과도하신 부분이고요. 다만……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료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안 주신 것도 있고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 주지도 않았던 사실도 있고 거기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남인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경과보고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신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용산지역에 하는 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친구들끼리 막 엎치락뒤치락 그러면서 놀이도 하고 놀다가 싸웠습니다. 그렇지요? 싸우고 난 뒤에 이 싸움이 짙어져 가지고 엄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많이 팼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때린 친구가 와서 치료비하고 주면서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치료비 받고 그냥 화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분은 지금 가슴에 남아있지요. 가슴에 남아있고. 물론 일 못 해서 받을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치료받고 화해하자라고 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봐도 열 받는 거지요. 뚜껑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됐든 삼촌이 됐든 간에 '야, 우리 맞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화해·치유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끼리 기념이라도 한번 하자. 우리 이런 날은 잊지 말자',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해서 내 집안에 내가 우리끼리 모여서 기념할 수 있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내 집안에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화해·치유비 줬다고 해서 그걸 빼라 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좀 더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일단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정부가 소녀상 관련돼 가지고 철거하라 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조형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생산가능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지금 우리 기혼여성들 중에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5세에서 54세.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전체 여성고용률을 대비해 보면 대략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한 92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68만 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중에서 190만 명 정도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또 2017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라도 단기·중기·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청년고용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시켜서 결혼도 빨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유휴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그중에서 우리 여성 그리고 고령화, 고령으로 접어드는 고령인구들이지요.

그러면 우리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0만 명 정도가 경력단절 여성인데,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경력단절 여성의 길을 걷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력단절 예방에 있어서는 지금 가족친화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보게 되면 아까 모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가족친화 경영 만족도 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 제도 실행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정시간 퇴근할 때 가점을 5점 정도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장근무를 쭉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버타임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중소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점보다는, 뭐라고 그러지요? 점수를 빼는 부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필요한 부분이지요.

○임이자 위원 감점, 감점 부분도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우리나라 아직까지 가족친화경영 정도가 갈 길이 많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CEO의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감점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력단절 여성들,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앞으로 재취업하실 분들한테는……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남인순 마무리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분들에게도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은 육아휴직 지원금이라든가 모성보호 지원금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근무시간을 안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오버타임이 굉장히,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 멀쩡하게 잘

한다고 해 놨어도 오버타임 관련돼 갖고 이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감점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측정 가능한 부분에서 정시퇴근을 좀 더, 지금 단계에서는 정시퇴근하자고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버타임까지 하게 되면 인증제도를 받는데 노동부 확인서도 필요하고 이렇게 절차가 번거로우면 이 기업들이 호응하지……

○임이자 위원 그런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사실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제도에서 어떻게든지 기업이 들어와서 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 단계에서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가·감점이나 실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이런 겁니다. 오버타임이 많고 그다음에 근로자 불이익이 많은데 근로감독 지적사항도 많으면 이 회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 기업 실태점검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인증 제도에서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노동부에서 이미 그런 경고가 되어 있거나 하는 근로감독 부분을 어떻게 조화할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마무리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관련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쪽에 지금 많이 가 계시고 돌봄 서비스에 지금 많이 취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돌봄 서비스에 한 부분은 1만 9000명 정도 되시는데……

○임이자 위원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전체 1만 9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쪽에서 하는 돌보미는 그런데 노인돌보미나 아이, 초등돌보미나 많습니다. 그런 쪽에……

○임이자 위원 전국적으로 말씀드려서, 취성패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새일센터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25개에서 35개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10개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아직 공모 중이라서 공모가 끝나면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요즘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요, 항간에는 여성계 블랙리스트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여성계 블랙리스트 존재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처음 듣습니다.

○박경미 위원 20대 국회 개원 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고 오늘도 권미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작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편파적으로 지급이 되었지요? 진보 성향 여성연합회는 작년에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보수 성향 여성협의회는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성협의회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여성연합회는 2003년 이후 13년간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회 8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끊기게 된 거지요.

진보적 성향의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문화계 블랙리스트요, 이게 문체부에서 작성이 되었다면 문화계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청와대가 문화계만 통제했을까요? 당연히 여성계에도 마수를 뻗쳤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억지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는 여성연합회 어디가 못마땅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 내용은 위원님 처음 듣습니다.

○박경미 위원 여성연합회가 선정하는 성평등 걸림돌상에 박근혜정부의 정책들, 그러니까 성교육표준안·노동정책·양성평등정책 이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 밖에 난 거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때 저희가 그것을 선정한 것은 부 자체에서 3·8 대회 하기 전에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몇 부분은 좀 수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부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 예산 지원은…… 이미 지나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의지를 밝혔는데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미 위원 결국 그러면 여성연합회를 지원하지 않은 결정은 여가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청와대 오더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당시 그런 것을 배제하고 논의를 하고 이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결국 여가부가 여성연합회에 지원금을 끊은 배경도 결국 그거지요? 성평등 걸림돌상에 그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끊으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내용에……

○박경미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끊으셨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양성애자나 그다음에 이성애자 이런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능한 부분으로 여성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여가부가 쳐 놓은 그런 어떤 한, 글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경계, 혹은 금보다 너무 진보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지원을 안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러니까 이 정부……

○박경미 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 설정해 놓은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행사 내용이 있으면 여성연합회, 올해도 3·8 세계여성대회에 지원 안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한 내용은 일단 이 성평등이나 전체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 사회 시점에서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공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요 여성연합회의 진보적인 성향,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슈에 있어서 여가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진취적이다, 그래서 13년간 이어져 온 예산 지원을 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행태 아닐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자료, 2015년·14년 자료를 다 검토했었고……

○박경미 위원 그러면 13·14·15년보다 16년은 굉장히 많이 다른가요? 굉장히 과격하게 진보적이 되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박경미 위원 예, 지금 또 말씀하시네요. 제가 처음에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만 했더니 너무 진보적이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두 가지가 결합된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운동에 있어서 양쪽 다, 여협이나 여연 쪽에도 저희가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여협은 말을 잘 들었고 여연은 말을 안 들은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에 시너지가 있는 부분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박경미 위원 지난 국감 때부터……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러니까 비판적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를 비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현재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장했던 부분이 여성가족부 정책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너무 과도하게 있을 때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지난 국감 때부터 굉장히 좋은 표현을 개발하셨더라고요.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을 '여가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주 완급화법으로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여가부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2016년에는 드디어 지원을 못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표현은 좀 과도하신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장관님의 표현이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답변 전체적으로 하실 때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얘기를 하시면서 양성평등이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바고 성평등은 보다 진보적인 개념인 것 같은 뉘앙스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평등·양성평등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 회의 말미에 정확하게 뒤에 계신 여성정책담당관들 계시지요? 양성평등기본법 다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저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넘겨 주세요.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일을 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원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장관님, 이 문제와 출제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글쎄, 이게 좀……

아이들에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문제를 냈다고 생각은 하는데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대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태섭 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게 아니고, 정확한 원인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본 것은 정확한 원인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 중의 하나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하는 여성들이 제대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일·가정 양립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냐,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아닙니다.

○금태섭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금태섭 위원 다음 것을, 넘겨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OECD 통계인데요. 2014년도 OECD 국가의 25세~34세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보면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터 복귀 지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나온 가임기 여성 지도까지 도대체 여성 문제

와 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행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출산 대책 TF에서 이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 때 7월 28일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8월 10일 관계부처 실무과장급회의, 8월 1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8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가부가 출산 지도를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방금 그 회의에 참석한 담당 국장에게 물어봐도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검토된 바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산 지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적절한 발표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 교과서에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것이 팽배되어 있는데 여가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이게 전반적인 그 개념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그리고 성주류화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우리 부가 교육을 해 온 만큼 정책 현장에서 그 인식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더디고 아주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에서는 보다 좀 쉬운 내용으로 어느 전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요. 이 학교 단계, 초중등 교육단계 그리고 초중등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 양성 단계에도 이런 부분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조치를 좀 취하시겠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태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장관님 견해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요, 작년 10월에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종로구청에 설치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더 이상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부에 철거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 철거나 소녀상에 대한 어떤 다른 행위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관님의 견해는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 소녀상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정부가 이것을 철거하게 하거나 또 여기에 반대하거나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금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 문제, 그 문제가 최근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에 회원 수가 42만 명 정도 되는 '꿀밤' 알고 계시지요? '꿀밤'이라는 사이트가 적발되었는데,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삼화 위원 혹시 보도되기 전에 여가부에서 이것 모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사실 양성평등 모니터링이나 매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좀 단절되는 시점도 있고요. 그리고 매체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인터넷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작동 메커니즘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언론에 나오기 전

까지, 적발되기 전까지는 여가부에서는 모르셨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회원이 42만 명이나 되고 하루에 5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이런 상당히 대규모인데 이 사이트가 적발된 것도 피해여성 한 명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아마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수사당국도 그렇고 여가부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인권이라든가 여성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음란 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 성관계, 강간, 심지어 그런 영상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에 나온 것 보셨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김삼화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소라넷이 폐쇄되고 또 꿀밤 사이트 수사, 이런 것을 보면 다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있거든요. 해외에 있지만 의지만 있으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음란물 사이트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여가부에서 방송·신문·온라인 등에서의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 사이트 적발 그리고 차단 또 피해자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랜덤채팅앱,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업무보고에서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TFT 구성을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온라인 랜덤채팅앱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 해 2015년보다 적발된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경찰과 특별단속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사이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여가부가,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 볼 것이고요. 이 랜덤채팅……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랜덤채팅 덫에 걸리면 걸리는 청소년 피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속도도 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올해 또 업무보고에 보면 스토킹 관련 스토킹 방지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안을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스토킹은 납치·살인, 그런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해서 과태료 몇만 원 내고 마는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스토킹이 결국에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16대 이후에 이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와서도 본 위원도 제정법으로 발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춘숙 의원님도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정부안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작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부처,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 해서 관련 부처의 의견 조율도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을 형사법으로 할 거냐, 가정폭력피해 방지법으로 할 거냐, 특별 제정법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좀 당겨서 시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이나 개정을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를 해서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출신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장관님, 작년 11월에 4억 4000만 원 규모의 위안부 자료조사사업을 공고해서 공모하신 적 있지요, 담당자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12월쯤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12월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주민 위원 그 사업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런 데들이 각각 사업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사업자로 선정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소요예산 4억 4000만 원 가운데 외부용역비로 책정된 게 무려 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외부용역비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단순 외부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1억 8000, 국제컨퍼런스가 3200만 원, 증언자료에 대해서 분석하는 외부용역을 주는 게 2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 이상을 외부용역에 할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하청을 주고 다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외부용역에 재하도급을 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봤을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사업 당사자로 선택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연구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단체가 선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고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부 또 연구한 역량도 있고요. 그리고 제안서 내용에도 여성인권 관점에서 제안한 참신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고 특히 하청을 다시 이제, 하여튼 외부에 용역 주는 게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면 이건 누가 봐도 자체적으로 연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오히려 서울대 산학협력단 쪽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 쪽에다가도 우리가 좀 제대로 연구인력이 꾸려지지 않았으니 같이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능력 없는 단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하청에 또 재하청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고 진짜 자체적으로 조사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면 이것은 좀 취소를 하고 다른 진짜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박주민 위원 아직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못하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서울대 산학인력단에서 들어온 내용에도 자체적으로 다 연구원이 세팅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러니까 연구인력에 대해서 제가 전체 어떤 인력이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저희 의원실 쪽에 그 살펴보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주민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연구방식인 것 같아요.

주요 연구항목을 다 외주를 주면서 어떻게 자기가 사업자로 하겠다고 응모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저도 확인……

○박주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수행범위와 내용도 이미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 작업하고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든지 또는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진 정책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취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하고도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위원님,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루고 체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한번 살펴봐 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지금 온 국민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상당히 분노해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장관님 답변을 듣다가 약간 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안에서의 성형시술이 뭐가 문제냐? 노 전 대통령은 부부가 그 수술을 했다. 비선실세는 어느 정권이나 있어 왔다. 이 정권, 저 정권 다 했던 일이 이번에 크게 터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권력 비리가 재수 없어서 터졌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발언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 이 고위공직자가 탄핵을 목전에 둔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런 정도밖에 인식 수준이 안 되어 있고 이 정부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게 다 이런 인식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 대화의 전체 내용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발언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이 정부를 이렇게 만든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은 정말 처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숙하셔야 돼요. 이런 발언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이정미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이미 다 들었고 변명하실 필요가 없고 자숙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출산지도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출산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랑은 실제 이 일이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야 회의록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12월 29일 날 행자부에서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무위원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1월 달에 국무위원 회의 여러 번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정미 위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침해하거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을 행정부에서 할 때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될 요구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 어떻게 지적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알고 제가 직접 또 과거에도……

○이정미 위원 아니,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 문

제를 의제로 삼아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떻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행자부의 사과를 받아 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정부 부처 간에서 그것을 뭐 사과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정미 위원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고쳐집니까, 이런 일이?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같은 국무회의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아닙니다.

장관님, 회의에서 행자부의 이 문제가 지적이 돼야 다른 부처들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것이 극복이 되는 것이지요. 회의는 그런 것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각 부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 내셔야지요.

그러면 그 국무회의 왜 가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적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것을 사과라는 형식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정미 위원 시정요구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시정요구는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도 심각하게 보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께 알리는 게 좋은 방법인지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하고 다음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전체 여성,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행자부의 공개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걸 받아 내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정부 부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저희가……

○이정미 위원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요 이런 일이 제2, 제3 계속 발생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문제 말씀드린 바 있지요? '못 생긴 여자가 밤길 혼자 다니는 것, 그것이 무기다' 이런 것 지적드렸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건 분명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정신 나간 정부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내용을 할 때 신중치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어떤 여성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걸 왜 장관님이 행자부를 대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명을 하세요? 장관님은 그걸 지적하셔야 될 위치에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 변명을 여기 와서 하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요,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들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걸 누가 어떻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정미 위원 장관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행자부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은 다른 사정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이정미 위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하지 말고 하세요, 여기서.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인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출산지도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을 요청했는데 시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까지 좀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 부분은 다시 시정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적했던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아니,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출산지도 자체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변경해서 일단 현재 있는 지도는 내리고 다시 하기로 한 건가요?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하기로 했는지 답변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위원장 남인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여가부랑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는 것까지는 답변을 받아 내신 겁니까, 거기까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런 협의는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국무회의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됐던 회의자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별도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행정……

○이정미 위원 그 회의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건 회의자료로 남지는 않습니다. 30분 짧게 캐주얼하게 하는 회의라서.

○위원장 남인순 하여튼 그건 이후에……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안 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전에 수차례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안 다루셨다는 거지요? 아까는 다루셨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우리 부에서 세 차례 국무회의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그리고 정부 홍보물에 대한 얘기는 수차례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출산지도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건 별도로 국무회의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왜 아까 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 전에 다른 일들 때문에 같이했습니다.

그건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아니, 이 문제는 개별로만이 아니라 저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 홍보물이나 문서에 성별영향평가 하자, 이건 물론 이후의 재발방지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출산지도 관련해서는 당장 어떻게 시정을 하기로 했는지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쨌든 협의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보고가 필요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협의를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여가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질의를 마치기는 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해서 양성평등이……

○권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주질의만 하고 추가질의를 꼭 하실 분만 하시자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추가질의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추가질의가 있으신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질의 두 분 있으시고,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정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간단하게요?

저희가 오늘 미리 간사 간에 합의를 할 때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까지 회의를 하자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추가질의는 현실적으로 한 3분 내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춘숙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그다음에

박경미 위원님도 손 드셨어요? 박경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렇게 네 분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출산지도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었어요.

거기 참여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참여 안 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권미혁 위원 이게 그 자리에서……

8월 25일 날 분명히 참여를 안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날짜들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아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출생아 2만 플러스 알파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정부가 인구동향조사에 혼인·출산지표 6종을 생산·관리하라고 하면서 가임기지도 이 부분을 관리하라고 그날 얘기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때 이미 이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목록에 가임기 지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행자부 입장에서는 그 6종 중에 이게 하나여서 자기네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했었냐면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여가부나 기타 부가 이 지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저출산·고령화위원들이 제기했을 때 그런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사후 문제가 아니고 이미 8월 달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게 관리대상이 되는 지표 6종 중에 하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보면 아무도, 행자부 입장에서는 관련 부처 중에 이 지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처가 하나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후 문제가 아니고 과정 자체에서도 여가부가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지요. 만일 그날 회의를 참여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지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기를 안 한 거라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참여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희한테 그 대답을 하실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연말에 백서 관련해서 보고를 다 들었을 때 여가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집필진하고 계약도 굉장히 애매했고 또 중간에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백서와 관련된 질의 중에서 이걸 백서라고 해야 될지 연구보고서라고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이후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러면 백서인 건지 연구보고서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형태가 될 건데요. 그게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통상적으로 백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같은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형태가 될 겁니다.

○권미혁 위원 백서인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백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백서라는 단어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할 필요는 있는데요. 정부가 발간하는 보고서는 백서가 맞습니다. 그게 기자회견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우리 부 참석자가, 각각 실무 담당자가 참여를 한 것

은 맞고요. 다만 그때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의 합계 출산율에 보면 가임기 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통계에.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계자료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걸 그대로 쓰면서 지도까지라는 말 형태로 좀 확대된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통계 데이터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게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조정회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것을 지시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관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가부가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가임기 여성……

○권미혁 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부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도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지난 11월 23일 한 뉴스지의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내용을 말씀해…… 제가 날짜랑 이런 게 정확하게 기억……

○정춘숙 위원 그러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여기 지금 12월 23일 보면,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서 위안부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기자에게 들려주었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제가 직접 방문했던 내용들입니다.

○정춘숙 위원 언제, 어디……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의 대화 내용은 언제, 어디서 녹음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작년에 명절 때 개별 방문했을 때 할머니하고 보호자께 양해를 구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정춘숙 위원 명절 때.

그러면 이게 서너 달간 핸드폰에 그 할머니 음성을 녹음하고 다니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요.

○정춘숙 위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에게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갖고 있었던 거지요. 예.

○정춘숙 위원 아니, 국회에서는 지금 제가 앞에서도 몇 월 며칠 누구라고 특정되어 있는 녹취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주신다고 하면서 장관이 피해자분 만나서 녹음하신 사실을 기자한테 들려주는 것, 이런 건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화해·치유……

○정춘숙 위원 동의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할머니한테 동의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기자한테는 들려줄 수 있으면서 국회에 못 준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 제가 녹취한 것은 재단에서 한 일이 아니고 제가 할머니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부분에서 녹취를 해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들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춘숙 위원 아, 들려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정춘숙 위원 그럼 들려주세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좀 들어 보게.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은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지금 관련 단체들은 이 일을, 그때 합의한 내용들을, 협의한 내용들을 집행하고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시민모임들이 할머니를 속이고 회유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재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으며 일본 정부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재단 해체해라, 이렇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 그 협상은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미 검찰에 고소한 바가 있고 특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문제들을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자료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재단에 대해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지금 재단은 이미 작년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저는 도저히 NGO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했잖아요.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예산 지원이 중단됐고 파견직원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개별에 대해서 현금 지급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의 그런 긴 설명 말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니, 저희가, 재단이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 해체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만 답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없습니다.

○정춘숙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장관님, 작년 11월 17일 상임위에서 12·28 합의가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장관님의 관대한 평가와는 달리 일본이 이 12·28 합의를 근거로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지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자 아베의 비서실장격인데요. 소녀상과 관련해서 국제조약에 따라 확실하게 대응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비엔나 조항 제22조2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녀상이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킵니까? 품위를 손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포괄적으로 해당국에서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것은 해당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해당국에서는 그러면 안녕을 교란시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일본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해당국의 문제라고……

○박경미 위원 해당국의 문제고 장관님께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느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해당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미 위원 해당국의 문제이고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반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일본은 한국 정부를 10억 엔짜리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려면, 보이스피싱 얘기까지 나오려면 12·28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합의 기자회견문

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의구심을 가진 건데요.

여러 차례 질의되어 온 바이지만 장관님, 이면합의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 그때 합의에 참여한 바는 없지만 여러 차례 외교부에 질의를 했었고 없었다는……

○박경미 위원 외교부의 답변은 이면합의는 없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면합의가 없었는데도 일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합의 내용에 성실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걸 근거로 얘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그 액면,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메시지나 함의는 저희가 찾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강은희 장관님, 조윤선 장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경미 위원 이면합의는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의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비엔나 협약을 들이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막말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고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외교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충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것,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런데 마치 성평등은 더 진보적인 것이고 양성평등이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듯한 게 있어서, 그거 분명히 아니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아닙니다.

○위원장 남인순 잘못 얘기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장 남인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자 제가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그냥, 지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는 뭔가 관련법을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면질의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박인숙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서면질의를 해 주셨고요.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1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미혁	금태섭	김명연	김삼화
김순례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인숙	박주민	송희경	신보라
신용현	윤종필	이정미	임이자
정춘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입법심의관	차인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차관	권용현
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
대변인	황윤정
정책기획관	김중열
여성정책국장	최성지
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청소년정책관	황진구
가족정책관	윤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월구

【보고사항】

○의안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8. 김상희·유은혜·김영호·이정미·윤소하·서영교·박주민·양승조·김수민·소병훈·권미혁·김해영·박남춘 의원 발의)

11월 21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2. 김철민·전혜숙·김정우·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 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기·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12월 5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2. 5. 장정숙·주승용·윤소하·노웅래·김영진·이용호·김중로·윤관석·김민기·홍영표 의원 발의)

12월 6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6. 정부 제출)

12월 7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 김동철·도종환·정인화·이정미·이동섭·박선숙·김삼화·김수민·신용현·황주홍·강창일·박지원 의원 발의)

12월 19일 회부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9. 정부 제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함진규·박덕흠·정용기·이헌승·김병기·정종섭·김기선·이철우·염동열·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회부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이명수·권석창·김도읍·함진규·지상욱·이채익·이은권·박순자·임이자·유민봉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2017년 1월 2일 회부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 2. 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1월 3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1. 16. 김명연·이우현·유민봉·이명수·김기선·박덕흠·김성원·김정재·염동열·정갑윤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3. 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2. 신보라·하태경·이종명·박덕흠·정갑윤·박명재·이철규·김현아·권석창·이학재·정운천·윤한홍·조경태 의원 발의)

1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